

SK하이닉스, 국립대학과 산학협력 5년 연장

SK하이닉스(대표 권오철)는 지방 국립대학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인 <SK하이닉스 트랙>을 연장 운영한다고 7월18일 발표했다.

<SK하이닉스 트랙>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집중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SK하이닉스는 2007년부터 경북대, 전남대, 충북대 등 우수 국립대학과 5년간 산학협력을 맺었고 최근 2017년까지 협약을 연장했다.

또 공과대학 반도체 관련학과에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운영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실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.

아울러 대학 재학생 중 2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졸업 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, 방학 중 인턴십 기회도 제공해 채용까지 이어가고 있다.

SK하이닉스 관계자는 “트랙 운영으로 우수한 기술직 엔지니어를 사전 확보해 양성할 수 있으며, 대학들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SK하이닉스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반도체 관련학과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지방거점 국립대학을 비롯한 우수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며 미래 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12/07/18>